

# KRIVET Issue Brief

2014

발행인 박영범 | 발행일 2014년 7월 15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55호

## 고학력 여성 취업과 기업 인력수요 미스매치

- 고학력 여성이 주로 취업하는 일자리는 교육서비스업 전문가(26.4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가(10.3%), 금융 및 보험업 사무 종사자(6.3%), 도매 및 소매업 사무 종사자(4.2%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무 종사자(3.8%)임.
- 기업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위 5가지 일자리는 운수업 서비스 종사자(14.4%), 제조업의 장치,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(9.0%), 운수업의 장치,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(8.3%), 제조업의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(7.2%), 제조업의 단순노무 종사자(6.9%)임.
- 기업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위 5가지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은 전체 여성 근로자의 10.5%이나, 남자는 18.1%로 여성의 취업 기회가 더 적은 편임.
- 학력별로 인력이 부족한 상위 5가지 일자리의 여성 취업 비율을 살펴보면, 고졸 이하가 16.5%, 전문대졸 3.4%, 대졸 이상은 1.0%로 고학력 여성일수록 기업의 인력수요와 무관한 취업패턴을 보임.

### 01 분석의 필요성

본 연구는 반가운 외(2013), 『소득 3만불 시대를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방안』(장은공익재단 위탁과제)의 일부를 수정·보완한 것임.

####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국민 경제 차원에서 심각한 손실

- 고용률 제고는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
  -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3.5%로 OECD 평균(57.2%)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임.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률 제고가 중요하데, 특히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한 고학력 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
  - 고학력 여성은 결혼·출산·육아의 생애사적 사건을 계기로 경력 단절 후 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장하는 현상이 심각함.
-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학력 여성의 취업과 기업 인력수요 간의 미스매치 해소가 필요
  -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산업차원에서 고학력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함.
  - 기업 내 빈 일자리와 실제 취업구조를 비교하여 고학력 여성의 취업을 제고에 시사점을 주고자 함.

### 02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

#### 분석 자료: 고용주 숙련수요 조사(2012, 2013),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(2012.8)

- 한국직업능력개발원(2012년, 2013년)의 '고용주 숙련수요 조사'
  - 조사 대상: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과 사업체 규모를 고려하여 층화추출하였으며, 제조업 2,603개, 서비스업 2,498개의 사업체를 조사
  - 분석 내용: 이 조사를 활용하여 산업-직종별 빈 일자리(vacancy) 분포를 분석. 빈 일자리란 고용주가



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이 발생한 경우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로, 어떤 일자리에서 기업의 인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지를 알려주는 지표임.

- 통계청(2012년 8월)의 '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'
  - 분석 대상: '고용주 숙련수요 조사'와 비교하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근로자를 분석
  - 분석 내용: 성별·학력별로 임금근로자의 산업-직종별 취업 분포 및 취업 비중이 높은 상위 5가지 일자리를 분석

**| 분석 방법**

- 산업-직종별 취업 분포 분석
  - 대분류를 기준으로 14개 산업과 8개 직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함.
  - 산업-직종별 취업 비중은 해당 집단 내 임금 근로자 중 해당 산업-직종별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(%)으로 계산함.
  - 임금 등급은 해당 집단을 Levin-Waldman의 방법에 따라 0~1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, 숫자가 클수록 임금 수준이 높음.
- 빈 일자리 분포와 고학력 여성 취업 분포 비교
  - 빈 일자리 비중(%)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체의 숙련부족 빈 일자리 중 해당 산업-직종의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함.
  - 기업의 빈 일자리 분포와 고학력 여성 취업 분포 간의 괴리 정도를 보다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두 분포의 상관관계를 사용하였으며, 모든 산업-직종별 일자리(14개 산업×8개 직종=112개 일자리)를 활용함.
  - 상관관계에서는 추세선의 기울기가 45°(상관관계 추정값: 1.0)에 가까울수록 취업분포와 빈 일자리 분포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석함.

**03 여성 임금근로자의 산업-직종별 취업 분포**

**| 고학력 여성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교육서비스업의 전문가임.**

- 여성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전문가(9.2%), 교육서비스업의 전문가(8.5%), 도매 및 소매업의 판매 종사자(7.4%) 순임.
  - 남성의 경우 제조업의 장치,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(9.6%), 제조업의 사무 종사자(5.0%), 도매 및 소매업의 판매 종사자(4.6%)로 여성과 남성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가 서로 다름.
  - 임금 등급을 살펴보면, 여성의 상위 일자리는 1~5등급으로 남성(4~7등급)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음.

〈표 1〉 성별 임금근로자의 취업 비중이 높은 상위 5가지 일자리

|    |  | 산업-직종                 | 비중(%) | 임금 등급 |    |  | 산업-직종              | 비중(%) | 임금 등급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남성 |  | 제조업-장치,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| 9.6   | 5     | 여성 |  |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-전문가 | 9.2   | 4     |
|    |  | 제조업-사무 종사자            | 5.0   | 6     |    |  | 교육서비스업-전문가         | 8.5   | 5     |
|    |  | 도매 및 소매업-판매 종사자       | 4.6   | 4     |    |  | 도매 및 소매업-판매 종사자    | 7.4   | 2     |
|    |  |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-전문가  | 4.0   | 7     |    |  | 숙박 및 음식점업-서비스 종사자  | 6.7   | 1     |
|    |  | 제조업-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  | 3.8   | 5     |    |  | 제조업-단순노무 종사자       | 4.3   | 2     |
|    |  | 계                     | 27.1  | -     |    |  | 계                  | 36.0  | -     |

- 여성의 학력별 일자리를 살펴보면, 고학력 여성은 교육서비스업의 전문가(26.4%)로 가장 많이 종사하는 반면, 고졸 이하 여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 종사자(10.1%)의 비중이 높아 학력별로 취업하는 일자리가 상이함.
  - 학력별 취업 비중이 높은 상위 5가지 일자리의 임금 등급은 고졸 이하가 1~3등급, 전문대졸은 3~4등급, 대졸 이상은 5~6등급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이 올라감.

〈표 2〉 학력별 여성 임금근로자의 취업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일자리

|          | 산업-직종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중(%) | 임금 등급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대졸 이상 여성 | 교육서비스업-전문가                   | 26.4  | 6     |
|          |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-전문가           | 10.3  | 5     |
|          | 금융 및 보험업-사무 종사자              | 6.3   | 6     |
|          | 도매 및 소매업-사무 종사자              | 4.2   | 5     |
|          |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-사무 종사자      | 3.8   | 5     |
|          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1.0  | -     |
| 전문대졸 여성  |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-전문가           | 24.9  | 4     |
|          | 교육서비스업-전문가                   | 7.9   | 4     |
|          | 도매 및 소매업-사무 종사자              | 5.8   | 4     |
|          | 도매 및 소매업-판매 종사자              | 5.7   | 3     |
|          | 제조업-사무 종사자                   | 4.6   | 4     |
|          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8.9  | -     |
| 고졸 이하 여성 | 숙박 및 음식점업-서비스 종사자            | 10.1  | 1     |
|          | 도매 및 소매업-판매 종사자              | 9.8   | 2     |
|          | 제조업-단순노무 종사자                 | 7.1   | 2     |
|          | 제조업-장치,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     | 6.0   | 3     |
|          |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-단순노무 종사자 | 5.5   | 1     |
|          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8.5  | -     |

#### 04 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여성 취업 분포의 미스매치 분석

인력수요가 높은 빈 일자리는 모두 운수업과 제조업에 속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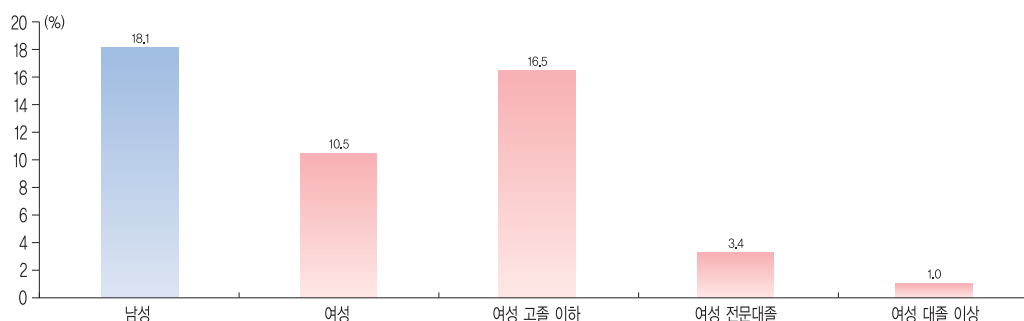
- 기업의 인력수요가 높은 상위 5가지 일자리는 운수업의 서비스 종사자(14.4%), 제조업과 운수업의 장치,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(각각 9.0%, 8.3%), 제조업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(7.2%)와 단순노무 종사자(6.9%) 순임.
  -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, 운수업 서비스 종사자(7등급)를 제외하면 2~5등급으로 낮은 편임.

〈표 3〉 기업의 인력수요가 높은 상위 5개 일자리

| 산업-직종                 | 비중(%) | 임금 등급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운수업-서비스 종사자           | 14.4  | 7     |
| 제조업-장치,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| 9.0   | 5     |
| 운수업-장치,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| 8.3   | 4     |
| 제조업-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  | 7.2   | 4     |
| 제조업-단순노무 종사자          | 6.9   | 2     |
| 계                     | 45.8  | -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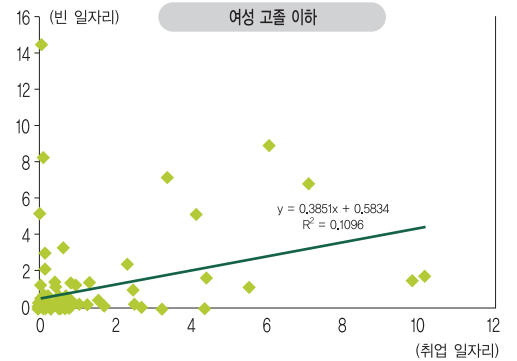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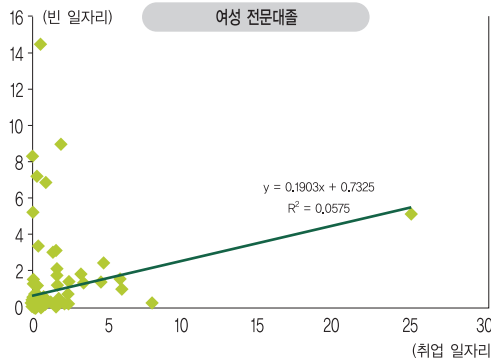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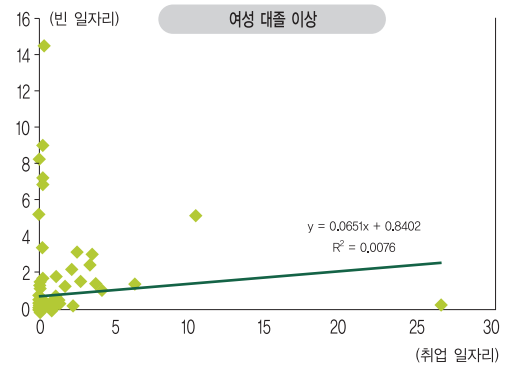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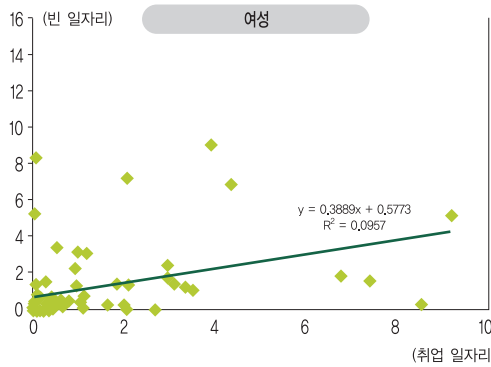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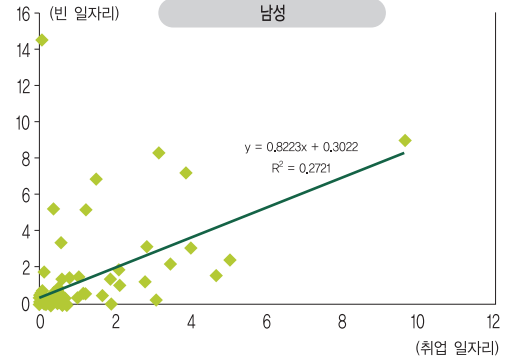
고학력 여성일수록 기업의 인력수요와 무관한 취업패턴을 보임.

- 기업의 인력수요가 높은 상위 5가지 일자리와 여성이 주로 취업하는 일자리를 비교해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, 특히 고학력 여성일수록 괴리가 큼.
  - 여성은 인력수요가 높은 상위 5가지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10.5%로 남성(18.1%)에 비해 7.6%p 낮음.
  - 고졸 이하 여성은 16.5%, 전문대졸 여성은 3.4%, 대졸 이상 여성은 1.0%로 고학력일수록 인력수요가 높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율이 낮음.



[그림 1] 빈 일자리 상위 5가지 일자리에서 해당 집단 임금근로자의 취업 비율

- 고학력 여성 일자리 분포와 기업의 빈 일자리 분포의 상관관계를 추세선으로 살펴보면, 남성의 추정값은 0.82로 여성(0.39)보다 1.0에 가까움.
  - 여성 고졸 이하는 0.39, 여성 전문대졸은 0.19, 여성 대졸 이상은 0.07로, 고학력 여성일수록 기업의 인력수요와 거의 무관한 취업 패턴을 보이고 있음.



[그림 2] 성별 · 학력별 임금근로자 취업 일자리 분포와 기업 빈 일자리 분포의 상관관계

## 05 시사점

- 분석 결과, 기업이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일자리는 특성상 여성이 취업하기에, 특히 고학력 여성이 취업하기에는 매력적이지 못함.
  - 일-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근로조건의 문제, 승진 시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조직문화의 문제, 임금 차별의 문제 등, 고학력 여성이 일하기에 매력적이지 않은 일자리 특성이 중요한 원인일 수 있음.
  - 또한 기업이 제공하는 빈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고학력 여성의 기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 역시 미스매치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음.
-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일-가정 양립지원 및 여성차별 완화 정책을 지속·강화해나갈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교육훈련 정책이 고학력 여성인력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직업의 창출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.

반 가 윤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)